

2016. 5+6 | Vol. 184
DAIL COMMUNITY 다일공동체

DAIL



Pray for NEPAL



그마음 향기나는 사람

네팔의 재난복구 지원사업을 위해 지진 발생 후 저는 네 번째로, 다일 가족들 모두를 합하면 열 번째로 재난복구 지원을 위해 초토화된 땅을 또 다시 밟았습니다.

지난해 봄과 가을 현지 사정상 두 번이나 무산되었을 만큼 가고 싶다 해서 네팔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2015년 4월, 대지진으로 인해 큰 혼돈과 아픔을 겪어야 했던 네팔 땅이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도록 1진에서 10진의 긴급 구호팀을 파견하면서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최선을 다해 복구를 진행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땅 위에서 네팔인 '파라' 목사님이 한 말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지진이 모든 건물을 흔들고 무너뜨릴 수는 있지만 주님만 바라보는 제 마음을 흔들고 믿음과 희망을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행복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표정 속에는 아름다운 미소와 마음속엔 행복이 가득해 집니다.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서 평화로운 웃음이 함께하는, 기쁨이 넘치고 향기로운 매일 매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만이 지니고 있는 마음씨가 있습니다. 없으면서도 남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 자기도 바쁘면서도 순서를 양보하는 마음, 어떠한 어려움도 깨끗하게 이겨내는 마음, 어려울 때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주려는 마음 말입니다.

이같은 마음, 이같은 사람, 이같은 향기, 이같은 진실은 항상 부드럽고 상냥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꽃 향기나 과일 향과 비교가 되지 않는 더욱 더 진하고 감동적인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일의 후원회원 여러분이 그 사람입니다!

참사랑의 나눔과 섬김을 실천해 주심에 감사 드리오며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꽃향기 진동하는 기쁨 가득한 날 되시길 기도합니다.

작은 형제, *천*인드물림



c.o.v.e.r.s.t.o.r.y

Pray for Nepal

카트만두 마누하르 빈민촌의 아이들이 방퍼센터
앞마당 놀이터에서 꿈과 희망을 키워갑니다.

CONTENTS

- 02
해외사역탐방
네팔지진복구 첫 결실, 교회재건헌당
- 08
후원자 이야기
박승철헤어스튜디오 윤이중 사장을 만나다
- 12
가정의달 특집기사
쌍문동 두 모녀 이야기
- 15
영혼을 위로해 주는 시
- 16
현장이야기
다일의 국내외 현장이야기
- 28
봉사이야기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 30
2015년 결산
- 32
신규후원회원
- 34
후원안내

발행인 | 최일도 편집장 | 김연수 편집위원 | 김도한, 박하림
 사진 | 김도한 디자인, 인쇄 | 틀니 디자인 어소시에이츠
 발행일 | 2016년 5월 발행처 | 다일공동체
 주소 |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전화 | 02-2212-8004 팩스 | 02-2243-8005
 홈페이지 | www.dail.org



**네팔지진복구
첫 결실,
교회재건헌당**
해 외 사 역 탐 방

마라나타교회 (담임 시다 람 아찌레 목사) 헌당예배





조띠니바스교회 (담임 따라 목사) 헌당예배

자신의 못난 모습을 웃음으로 안아주는 성도들이 있어 너무 행복한 목사입니다

-조띠 니바스 교회 따라목사

마라나타 교회헌당 - 모자이크 교회 후원으로

신두팔촉의 우크바리는 170가구에 1,000여명이 살고 있고, 5학년까지 다니는 초등학교가 있는 산 위의 마을입니다. 지난해 지진으로 이 마을에서는 다섯 명이 별세했고 집들은 대부분 무너져서 지금은 임시로 거처를 만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형님에게 복음을 들었고, 형님이 건네준 작은 성경책을 읽고 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동생 어준 뿌라시드 아짜라 목사님이 중심이 되어 세운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크바리 마라나타교회를 섬기고 있는 시따람 아짜레 목사님은 마을 주민들에게 농사와 커피 재배를 가르치며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라나타 교회는 다일공동체 이사이신 서울 모자이크 교회의 박종근 목사님과 교우들이 무너진 교회를 수축하기 위

해서 건축비 전액을 헌금하여 세워지고 봉헌한 예배당입니다.

조띠 니바스 교회

- 뉴욕 하크네시아 교회 후원으로

따라 목사님은 지난 지진으로 사랑하는 성도 50여명 중 일곱명을 먼저 보내고 그 가운데 사위 목사도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고통을 가까이에서 목격하였습니다.

9천 명의 사망자 중에 절반인 4천 명 이상이 사망한 신두 팔촉에서 태어나서 이곳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선한 목자 따라 목사님은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의 못난 모습조차 웃음으로 안아 주는 성도들이 있어 자신은 너무 행복한 목사라고 이야기 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사야 61:3절 말씀을 따라 목사님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정희 장로님께서서는 준비해 오신 십자가를 그에게 선물하고 안아 주시며 “이렇게 맑은 영혼을 만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한다”며 “고난을 이긴 승리자의 미소를 만난 것 같다고 하시며 너무 편안한 삶을 쫓아 사는 자신이 부끄러워 진다”고 하셨습니다.

너빈교회 – 뉴저지 김홍일 장로님 후원으로

너빈교회가 있는 까르끼따르 마을은 상가족 vdc ward 1에 위치한 총 146가구 1,000여명 이상이 살고 있는 산꼭대기 마을입니다. 1년 전 지진으로 인해 3살 아이 한명이 죽었고, 7명이 중경상을 당했는데 사모님이 무너진 예배당에서 마지막으로 구출될 때 허리와 다리를 크게 다쳐 한동안 병원치료를 받고서 이제 서야 회복 되었다고 하십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거네스 버하드르 커트리 목사님 역시 혈액 종양이란 질병과 투병중에 있어 매우 힘들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련과 역경 속에서 무너진 교회를 수축할 엄두를 못내고 있다가 꾸준히 지진복구 활동을 펼치는 기독교 NGO ‘네팔 다일공동체’가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와 눈물로 간청하여 연결이 되었고, 미국 뉴저지의 김홍일 장로님께서 너빈교회 이야기를 들으시고 건축비를 전액을 후원하겠다고 응답해 주셔서 이번에 하나님께 올려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당이 무너져서 어린 아이가 죽고 성도들이 갇혀 있다가 구조되었기 때문에 한동안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기를 꺼려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신축하게 되어 많은 주민들이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마을 주민 모두가 크게 기뻐했습니다.

너빈교회 (담임 거네스 버하드르 커트리 목사) 헌당예배





① 카트만두 밥퍼배식 ② 포카라 밥퍼에서 김두식 다일공동체 감사

다시 찾은 नेपाल의 밥퍼와 빵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시스 디 누운처, 예수 나우매
아시스 디 누운처, 예수 브레이 머어매"
네팔 다일공동체 밥퍼센터가 보이는 마을로 들어 서
기 전 멀리서부터 아이들의 노래 소리와 웃음 소리
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전세계 다일공동체 마을 중
에서도 네팔 다일공동체가 위치한 마누하르 빈민촌
이 가장 가난한 마을이기는 하지만 아이들의 맑은 눈
망울과 밝은 미소는 그 중 최고입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청초함과 순박함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밥퍼 센터가 있는 마누하르 지역은 가장 가난한 네
팔 주민들과 인도 이주민, 남부지방에서 이주해온 떠
라이 이주민들이 밀집해 사는 카트만두에서 가장 큰
빈민촌입니다. 그 한복판에 네팔다일비전센터가 자
리잡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강변의 고수부지 쓰레
기를 치우고 냄새나는 땅 바닥에서부터 시작했습니



배식전 기도하는 사하라초등학교 학생들

다. 그래서 매일 매일 아침마다 이뤄지는 밥퍼는 300명 넘는 마누하르 강변에 사는 어린이들의 허기진 배를 달랠 수 있는 유일한 식사가였기에 멈출수도 미룰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허기를 달래는 것뿐 아니라 호프스쿨과 다일유치원에서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카트만두 밥퍼입니다.

중국 다일공동체에서 잘 자라난 리일 형제의 꿈으로 시작된 '빵퍼'는 현재 캄보디아의 프놈펜과 네팔의 포카라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8일 포카라 빵퍼가 개원한 후 날마다 300명이 넘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맛있는 소보루 빵과 시나몬 빵을 번갈아 만들어 나누고 있습니다.

빵퍼를 할 수 있도록 빈 교실 한 칸과 창고를 선뜻 내어준 사하라초등학교 로차나 교장선생님은 포카라 다일공동체가 세워져 굶주린 아이들에게 매일 매일 음식을 줄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며 다일비전트립팀

모두에게 준비하신 선물로 감사의 인사를 온맘 다해 전하셨습니다.

앞으로 포카라 다일공동체와 사하라 초등학교가 더욱 한마음 한뜻 되어 더 많은 아이들에게 꿈과 사랑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며 사하라 초등학교뿐만 아닌 모든 어린이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길 기도해 달라며 손을 잡고 부탁하셨습니다.

힌두교 나라에서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지 않고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 길은 역시나 오직 사랑뿐입니다. 이 땅에 밥 굶는 이 없을 때까지 밥퍼는 빵퍼, 꿈퍼와 함께 말없이 꾸준히 참 사랑의 나눔과 섬김으로 이어나갈 것입니다.

빵퍼를 통해 포카라의 많은 어린이들이 네팔의 리더로,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 잘 자라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dal**

“네팔 지진 복구를 위해 후원해주신
모든 후원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밥퍼에서 꿈퍼로”

꿈다일

꿈다.
소중한 한 생명을

네 꿈은 뭐니?

우리는 이 질문을 어린이들에게 쉽게 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저 슬픔에 찬 눈망울뿐인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내 꿈이 무엇인지조차 모른채 살아가는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입니다.

손도 작고 키도 작지만, 하는 일은 어른과 같습니다.
꿈을 생각하기보다 당장 하루에 한 끼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 어린이들에게 꿈은 현재의 삶에서 그나마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밥퍼센터로 오는 것’ 일지도 모릅니다.

다일은 이 어린이들에게 진짜 꿈을 갖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꿈을 키워가는 어린이를 품는 기쁨을 당신에게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 생명을 품는 일,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한 달에 3만원이면 **균형잡힌 영양식, 의료 혜택, 위생용품
생필품, 교육과 학용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마태복음 13장 31~32절





박승철헤어스튜디오 윤이중 사장과 함께

다일공동체와 박승철헤어스튜디오가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행복

후원자 이야기

해가 갈수록 국내 미용업계의 사회공헌 활동은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 국내 대표 헤어 프랜차이즈 기업인 '박승철헤어스튜디오'는 '행복'이라는 사훈을 말뿐만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며 이웃사랑으로 행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봉사과 다양한 기부 활동을 통해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행복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는 멋진 기업!

박승철헤어스튜디오 홈페이지에 가보면 '나눔 이야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편견 없는 세상만들기 행복바이러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박승철헤어스튜디오의 나눔이야기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을 통해 보여주는 기식 사회공헌 활동이 아닌, 직접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지난 2016년 1월 25일에는 신년 전국 점장세미나에서 헤어디자이너들의 재능기부와 고객들이 직접 기부한 사랑의 모금함을 다일공동체에 전달해 주었습니다. 체인점 매장에서 '헤어디자이너 재능기부, 사랑의 모금함'을 비치하여 앞머리 커트 3천원, 머리샴



전달식에서 전국 점장님들과 함께

라 이 스 팟 릴 레 이


배식봉사 연 **650**시간  세 끼 식사 **365**일

푸 3천원 등을 재능기부로 모금하였고 체인본부 임직원들과 체인점 점장들이 매달 밥 한 끼를 기부하는 '1달러의 행복'에 참여하여 세미나에서 작년에 모금된 1,200만원을 전달하였습니다.

박승철헤어스튜디오 임직원들은 밥퍼나눔운동본부를 찾아와 연 650시간의 배식봉사를 하고 있으며, 365일 세 끼 식사의 소중함을 전달하는 '라이스팟 릴레이' 후원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헤어디자이너

와 인턴 사원들, 그리고 미용 뷰티 고객이 함께하는 행복 나눔을 신년 세미나를 통해 실천하는 박승철헤어스튜디오가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을 넘어 세계를 변화시키는 밥퍼나눔운동의 동반자로서 함께 일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다일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

의무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아닌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며 활발하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박승철헤어스튜디오의 살아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본받아 앞으로 우리 사회의 많은 기업들이 이와 같이 참 사랑의 실천과 나눔의 문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해 봅니다. 

박승철 헤어스튜디오 윤이중 사장을 만나다

INTERVIEW

Q 박승철헤어스튜디오에 대해서 소개해주세요

A 피에스씨네트웍스는 1981년 박승철헤어스튜디오 명동점 오픈 이래 35년간 대한민국 최초의 미용 프랜차이즈로 출점하기 시작한 미용분야의 새로운 역사로서 임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250개 체인점과 미용인들이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용브랜드로서 국내 최초의 멤버십 카드, 회원제 고객센터, 고객만족도 평가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미용 전반을 아우르는 교육아카데미, 미용 코스메틱, 가발사업까지 일체화시켜 시너지 창출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뷰티&컬처 문화를 이끌어가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Q 박승철헤어스튜디오에서는 어떤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A 박승철헤어스튜디오 체인본부를 중심으로 사회공헌사업 담당부서를 두고 체인본부와 7개 사업부, 270개 매장이 한 방향으로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육부문으로는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정부지원사업단과 연계하여 저소득계층 미용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부문으로는 골프선수 및 SK나이츠 농구단을 후원하고 있으며, 이웃과 함께하는 사업으로는 270개 매장에서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돌보기와 국군장병과 함께하는 헤어디자이너 전방방문 행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4년부터는 **사회복지법인 다일공동체 밥퍼나눔운동본부**와 함께 모든 임직원이 1인 1구좌 이상 기부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270개 매장에서 동시에 모금함을 비치하였고 신년시무식 등 매월 정기적으로 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 봉사하는 LOVE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체인본부에서는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임직원 후원기부 및 모금금액에 박승철헤어스튜디오 본사가 1:1 매칭 그랜트로 기부하여 매년 시무식 때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일공동체를 통해 진정한 인간다움을 회복하여 밥 굶는 이가 한사람도 없을 때까지 돕는다는 목표로 참사랑과 나눔의 생명이음줄 운동에 작은 손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Q 적극적으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게 되신 계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박승철헤어스튜디오의 사훈인 '행복을 전달하고 실천하는 기업'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기획하였고, 지금은 체인본부에서 사회공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 시킨 프로젝트가 '밥퍼' 봉사활동이 된 것입니다.



밥퍼 봉사하시는 박승철헤어스튜디오 윤이중 사장

Q
A

**직원들이나 체인점들의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후원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느낀 점이나 변화된 점이 있나요?**

‘밥퍼’ 봉사활동은 입사 1년 이상 된 근무자를 대상으로 입사기념일이 해당하는 다음 달에 봉사활동을 진행합니다. 처음 시작했을 당시, 오전 봉사활동 후 조기 퇴근제를 제시해서 봉사활동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때문만 아니라 봉사활동에서 느끼는 점들이 많았는지 서로 하려 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밥퍼’는 직원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활짝 웃으며 직접 배식과 주방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밥퍼’를 찾아오시는 분들 한분 한분과 눈을 맞추고 인사를 나누는데 직원들의 행복한 마음이 전달되어 어르신들의 얼굴에도 어드새 함박꽃 웃음이 지어져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그러한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 뿌듯함을 느끼고, 더 많은 것을 얻어가는 기분이라고 하더군요. 이와 함께 한 끼 식사에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됩니다.

Q
A

박승철헤어스튜디오가 생각하는 나눔의 의미, 사회공헌에 대한 비전이 궁금합니다.

잠시 개인의 만족감과 행복을 내려두고 세상에 나와 다른 사람들(소외계층)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정성을 보태 실행에 옮기면 누군가에게 희망이 생기고 삶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값진 일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만족감과 행복은 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사의 사훈이 ‘행복’인 만큼 앞으로도 직원 개인들의 행복 뿐 아니라 사회적 행복을 위해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고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데 앞장서서 노력하려 합니다.

Q
A

마지막으로 다일공동체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지금도 기아에 허덕이며 최소한의 권한조차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다일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쌍문동 두모녀 이야기



식사를 마친 후 쌍궁다리를 지나가는 모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고생만하고 살았던 김지영(가명)님은 시각장애1급, 정신지체1급을 가지고 있는 첫째 딸 이수진(가명)을 데리고 매일마다 쌍문동 집에서부터 다일공동체 밥퍼까지 아침 겸 점심 식사를 하러 옵니다.

다일공동체의 밥퍼는 생명이예요

어머니는 밥퍼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 때마다 달라지는 반찬과 후한 인심에 어머니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납니다.

“딸이 밥퍼 밥을 먹고 나서 집에서 밥을 차려주면 안 먹으려고 해요. 반찬이 없다고요. 항상 다일에 감사한 마음 뿐이에요” 매일 딸에게 배부리 밥을 먹고 돌아가는 어머니의 발걸음은 한결 가볍습니다.

한달 생활비 30만원

수진의 아버지가 준공무원이었던 시절에는 지금처럼 힘들지 않았습니다.

정년퇴임을 하고 나서 연금을 기대했지만 20년을 다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에 아버지는 직장을 구하려 직업 소개소를 돌아다녔지만, 나이 많은 사람이 구할 수 있는 직장이란 식당, 청소부, 아파트 경비 외에 딱히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을 구하기 위해 돌아다니는 교통비, 전화요금, 은행용자 이자 등 오히려 지출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나마 설상가상으로 아버지의 지병이 도져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검 절약이 몸에 밴 수진이 어머니는 1,000원 짜리 한 장도 쉽게 쓰지 못합니다.

“수진이 앞으로 나오는 장애연금 30만원을 생활비로 쓰는데, 전기세, 물세, 약값을 빼고 나면 쓸 돈이 모자라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밥퍼에서 먹어요……”

이토록 가정 형편이 어려운 모녀는 다일 밥퍼에서 아침 겸 점심으로 두 끼니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처음엔, 딸의 지체 장애로 인한 선입견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과 냉대가 심해 밥퍼에 와서 밥을 먹는 것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니다. 밥퍼에서 밥을 먹다가 힐끔거리는 다른 분들의 곱지 않은 시선에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너무 아팠습니다.

“딸이 나쁜 게 아니라 단지 몸이 일반 사람과 조금 다른 것 뿐인데, 사람들의 힐끔거리는 시선이 우리를 너무 괴롭게 해요. 그래서 밥 먹으러 오는 걸 건너 뛰기도 해 봤어요. 그러나 속까지 쓰러오는 배고픔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일어나자마자 아침을 보채는 딸 아이 때문에 다시 발걸음을 계속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아침에 일어나면 수진이네 집안에는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날은 밥퍼에서 점심을 먹고 집에 오가는 길에 경동시장에서 배추겉질과 버리는 봄나물을 주워 왔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무언가 먹일 수 있다는 생각에 그저 행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뿐인 딸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어머니의 소중한 사랑인 셈입니다.

빛만 4,000만원도 넘게 있어요

가족이 여러 명이라 방 2칸의 낡은 건물 꼭대기에 있는 옥탑방 전세를 구했습니다. 전에 살던 집에서 전세금을 올려 달라하여 2,000만원이나 되는 큰 돈을 융자 받아 옮겼습니다. 이마저도 언제 또 전세금이 오를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전세금이 오르면 이제는 또 어디로 가야 될 지 걱정이예요, 1년 뒤면 벌써 재계약하는 날이 또 돌아오는데……”

어머니는 아직 돌아오지도 않은, 앞으로 돌아올 날을 생각하며 불안한 마음을 혼잣말로 미리부터 쓸어 내립니다.

수진이 어머니는 틈만 나면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러 주민센터에 갑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전세가 2,800만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대상이 아니라는 한결같은 말뿐입니다. 빛이 있는 현실은 생각하지 못한 채…….

하루종일 돌보아야 하는 딸을 두고 일을 나갈 수도 없어 수진이 어머니는 오늘도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DaIL**

———
딸은 나쁜게 아니라
조금 다른 것
뿐입니다.



밥퍼에서 식사중인 모녀

———
어머니의 시름은
하루하루 깊어만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힘든 현실에 지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됩니다.

따뜻한 정성과 사랑이 담긴 밥 한 공기!

우리 모두에게는 삼시 세끼가 당연할 수도 있지만 배고픈 모녀에게는 삼시 한끼도 쉽지 않습니다. 5월 가족의 달을 맞이하여 다일공동체 밥퍼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 드립니다.

밥퍼니눔운동본부 02-2214-0365

후원계좌번호 : 국민은행 010901-04-037581

베트남 다일공동체

베트남 다일비전센터 건립 프로젝트

Vietnam Dail Vision Center Project



베트남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 동부에 자리하고 있으며 북쪽은 중국과 서쪽은 라오스 및 캄보디아와 접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한반도의 1.5배 정도이며 북부의 홍강과 남부의 메콩강을 중심으로 쌀의 곡창지대를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쌀농사 국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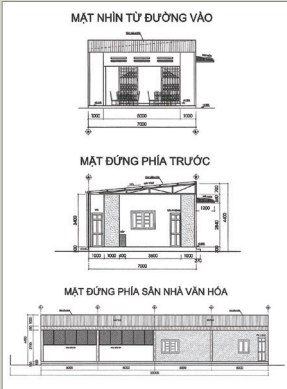
1975년 북베트남의 공산당이 사이공을 함락한 이래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통일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1986년부터 개혁, 개방정책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 오고 있지만, 개발에서 소외된 농촌지역으로부터의 대도시 이주자가 증가해 이들 지역간 빈부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다일공동체

베트남 다일공동체는 2002년 6월 다일공동체 설립자인 최일도 목사가 알리안츠 생명으로부터 한 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으로 받은 상금 5천만원을 베트남에 전액 헌금하여 굶주리고 병들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첫 시작은 베트남 정부로부터 지정된 호치민시에 있는 야간병원과 암병원에 무료급식을 제공함으로 출발하여 2010년 8월 베트남 정부로부터 정식 NGO 허가를 받아 빈탄군 빈흥화 마을의 고아, 과부, 독거노인,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들에게 무료급식 및 도시락지원, 생필품 지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센터 건립개요



다일비전센터 건축을 진행하고자 하는 지역은 베트남 호치민시 7군 탄흥 마을입니다.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주로 복권판매수익금 및 일용직으로 생활하고 있는 빈민층으로 대부분이 장애인, 독거노인, 결손가정의 아동으로 무관심과 가난 속에서 아무런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호치민 적십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호치민시 7군 적십자에서 문화행사 및 회의장소로 사용하던 장소를 지원받아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무상급식(밥퍼) 및 교육프로그램 (방과후 교실, 제빵기술교육)을 진행할 다일비전센터를 신축하여 안전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독거노인, 결식아동에게는 안전하고 영양이 있는 식사를 대접하는 장소로, 한창 꿈을 키울 아동들에게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더불어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관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건축지원 및 기자재 등의 후원과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건립예정 **2016년 12월(예정)**

건립예산 **5천만원(\$50,000)**

수혜지역 호치민 7군 지역

수혜대상 호치민 7군 지역 결식아동 및 장애인, 사회소외계층

주요사업 **무상급식제공** - 주 5회 120여명에게 식사(밥퍼/빵퍼)제공
구충제, 영양제 지급 - 지역민들에게 구충제와 영양제를 지급하여 영양상태 개선
교육지원 - 신축 센터에서 교육 봉사자들을 주축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영어, 한국어 및 예체능 등)과 자립기술교육(제빵)을 진행

Vietnam

영혼을 위로해주는 시

가브리엘 로버츠

>>>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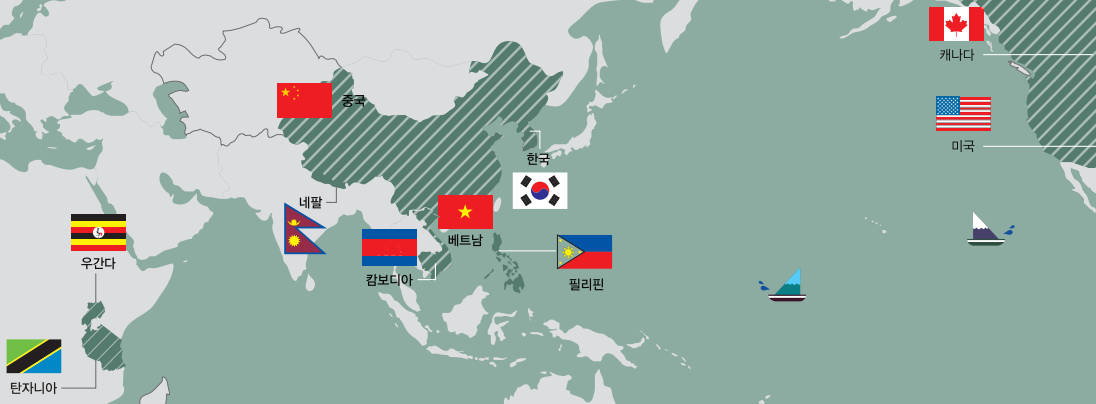
당신은 하늘을 보았습니까?
파랑은 꿈의 색입니다.

당신은 잔디를 보았습니까?
초록은 희망의 색입니다.

당신은 꽃을 보았습니까?
분홍은 사랑의 색입니다

크고 크고 크나큰 세상입니다
넓은 세상 안으로 들어가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요
꿈, 희망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찬...



현 · 장 · 이 · 야 · 기

네팔 NEPAL



최홍 네팔 다일공동체 원장

살롱!

네팔은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기간입니다.

대부분 학교들이 졸업식을 마치고 4월 14일부터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이에 맞춰 네팔 다일공동체에서 운영하는 호프스쿨도 4월 12일에 졸업식을 하고, 4월 18

일부터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특이하게도 네팔에서는 새 학년을 시작할 때마다 입학금을 내고 진급을 합니다. 이미 아동결연 후원자님들에게는 이 소식을 알려드리고 입학금을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학생인 우리 아이들 3백여 명이 모두 학교에 입학하고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기도해 주시고 십시일반 도와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네팔의 4월은 트레킹 성수기여서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멀리 높은 산에 만년설이 덮혀 있



자원봉사 및 후원안내

최홍 원장: 977-98038-00670,
977-98494-58330

후원 계좌: 국민은행 467701-01-157448

예 금 주: 사회복지법인 다일공동체



는 히말라야를 아름답게 볼 수도 있지만 네팔의 국화인 칼리구라스꽃이 만발하여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곳 네팔 다일공동체에서는 최일도 목사님과 함께 하는 나눔과 섬김의 밥퍼 순례가 3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지진지역에 세운 세 곳 교회의 봉헌예배와 카트만두와 포카라에서의 나눔, 섬김, 밥퍼 그리고 히말라야를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푸힐트레킹까지 다녀왔습니다.

네팔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꼭 한번 와서 체험해보시기를 청합니다.

지금 네팔은 건기여서 비가 오지 않는 시기인데 이상 기후 때문인지 비가 종종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지진 이후로 예년과 달리 구름과 안개가 많이 끼고 있음을 느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달라질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내 것이라고 여기고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없으니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닌 나그네임을 잊지 않고 깨닫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환경이 달라지고, 정치적 변화로 삶의 조건들이 달라진다고 해도 진실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삶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칠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 변화들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열정만큼은 변하

지 않고 그대로 남아 사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팔의 새해가 시작되는 4월에는 지난해 9월에 선포되었던 신헌법이 개정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네팔의 종교에 대한 6개 조항의 변화에 숨죽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의 인도봉쇄조치를 당하며 받아온 압력과 이 때를 놓치지 않고 다시 힌두 국가로 돌아가려는 강경 힌두주의자들이 기독교 선교를 금지시키려고 합니다. 만약 이 법이 개정된다면 선교사들과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NGO들의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비자연장에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지진 이후 기독교의 성장이 인구성장을 앞지르고 있는데 다시 핍박과 환란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네팔이 되도록 네팔과 다일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해주시시오!

멀리 네팔에 있는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복되고 빛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일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후원하시는 네팔에서는 지금, 지진으로 무너졌던 교회를 신축 또는 개축하고, 호프스쿨과 유치원이 새롭게 시작하고, 더 많은 아이들이 사랑과 소망을 키우며 자라고 있습니다.

네팔을 위해 계속 기도해주시시오! 



새학기를 시작한 아이들

미주 U.S.A



김고운 미주 다일공동체 실장

최준만 목사님과 조현성 교수님의 방문

지난 3월 미주 다일공동체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부터 다일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태백연동교회 최준만 목사님 내외분이 잠시 미국 아틀란타 방문시 미주 다일공동체의 사역을 격려해 주시고자 방문해 주셨습니다. 미주 다일공동체 가족들도 오랜만에 한국에서 방문객이 찾아 주셔서 얼마나 반갑고 기뻐는지 모릅니다.

미주 다일공동체의 사역을 소개해 드리고 오피스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미로 기도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미주 다일공동체의 귀한 사역에 감동 받으시고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격려와 함께 기도해 주시며 후원도 해주시고 돌아 가셨습니다. 함께 동행해 주시고 안내해 주신 조지아 크리스찬대학교 조현성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최준만목사님 방문



미주다일공동체 야드세일 행사

지난 3월 미주 다일공동체 오피스 주차장에서 베트남 밥퍼센터 이전 후원을 위한 아주 작은 야드 세일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간 후원받아 두었던 물품들을 모두 꺼내어 판매 진열대를 설치하고 홍보 피켓을 설치하는 등 미주 다일공동체 가족들은 아침부터 분주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위해 연합장로교회에서 2명의 봉사자 분들이 바자회를 위해 함께 애써 주셨습니다. 별다른 광고없이 평일 낮 시간에 진행된 야드세일이었기에 큰 수익을 내지는 못했지만 베트남 센터 이전을 위해 미주 다일공동체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행사를 할 수 있었음에 감사의 마음을 가집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름다운 야드세일 행사가 계속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DaJL**

미주 다일공동체 | +1-770-813-0899

야드세일 행사



우간다 Uganda



김혜경 우간다 다일공동체 원장

우간다에서 오랜만에 인사 올립니다!

한국은 지금쯤 사월의 봄꽃으로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울 때 이 곳 우간다는 우기에 접어들어 구름이 잔뜩 몰려 있습니다.

화창한 고국의 봄이 많이 그리웁니다.

우간다 다일공동체는 2014년 6월부터 1년간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2015년 6월 1일부터 수도 캄팔라의 빅토리아 호수 주변에 위치한 빈민촌 '무통고'에 있는 '키티코 정부초등학교'에서 매일 280명의 어린이들에게 빵과 우유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침을 먹지 못한 채 등교하는 어린이들이 대부분이라서 10시 티타임 시간에 전교생에게 빵과 우유를 먹고, 피부질환과 상처치료 등 양호활동도 병행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아직 센터를 마련하지 못하여 밥퍼와 예배를 드리지 못함이 늘 마음 한 구석에 아쉬움으로 남아있는데, 마



치료받는 아이



빵퍼

침 사역지 주변에 꼭 맘에 드는 주택이 한 채 있어서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 주인이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지만(2억)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집을 주신다면 너무나 행복할 것입니다. 교회와 밥퍼, 유치원과 '방과후 교실'을 함께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여건이 되는 곳이라 더욱 마음이 가는 집입니다. 꼭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섬기고 있는 '키티코 초등학교'는 빈민촌에서도 가장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 다니는 정부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아이들은 그야말로 너무나 가난해서 입고 있는 교복의 행색은 거의 누더기 수준입니다. 매일 볼 때마다 새 교복을 한 벌씩 해 입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리고 280명 전교생 중 10%가 넘는 아이들이 에이즈 고아들입니다. 부모가 에이즈로 모두 사망하여 할머니와 먼 친척들의 손에서 양육되고 있는 이 아이들을 일대일 아동결연으로 후원자들을 연결해 주는 사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아동 45명 중 24명이 감사하게도 아동결연이 확정되었지만 아직도 21명은 후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3만원이면 이 아이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신다면 다일공동체(02-2212-8004)로 연락 주세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우간다의 감장 천사 어린이들을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우간다입니다. **dail**

우간다 다일공동체 | +256-77107-2382

필리핀

PHILLIPHINE



한성희 필리핀 다일공동체 원장

제5기 필리핀 다일공동체 유치원의 졸업식

33명의 능글하고 어여쁜 아이들이 첫 발걸음을 성큼 디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의 성장을 기뻐하는 부모님들과 필다일 후원이사님이신 이성일 장로님과 윤정연 권사님, 바랑가이 캡틴, 저 멀리 우간다에서 오신 김혜경 원장님 등 많은 분들의 격려와 축복속에 아름다운 졸업식을 잘 마쳤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로 시작하는 유치원 수업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하고 사랑해주신 후원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작은 빈민마을 말리아에서 모세와 여호수와 같은 민족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가 배출되기를 지금도 두손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수 된 날의 진풍경

갑자기 예고 없는 단수가 밥퍼를 공급했습니다. 점심을 준비하던 스텝들과 함께 백방으로 물을 구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결국 원장님의 재치로 배식을 기다리던 아이들에게 밥그릇과 손가락을 집어서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이 날 160명의 아이들이 저마다 가지고 온 밥그릇에 배식을 받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급식소 안은 엉뚱한 이이템으로 축제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겐 단수조차도 재미있는 꺼리가 되는것을 보며 물이 끊겨 아등바등하는 어른의 시각만을 바라본 안타까운 마음을 점검하였습니다.

여름특별교실

4, 5월 8주 동안 특별교실이 열렸습니다. 음악교실, 미술교실, 한국어교실, 꿈찾기교실 네개의 강좌가 아이들의 기대속에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수업에는 8주 동안 배우고 익힌 것들과 작품들을 전시하고 공연도 합니다. 또랑또랑한 모습으로 하나라도 더 익히려는 아이들의 눈망울이 아름답습니다.

물이 끊겨도 신나는 필다일 밥퍼입니다. **DaIL**



자원봉사 및 후원안내

+63-927-560-7346

+63-91-6430-6937



필리핀 다일공동체 | +63-92-7560-7346



1



2

- ① 물이 단수되었을때 밥그릇을 들고 나타난 아이들
- ② 필리핀 다일공동체 유치원 졸업식

캄보디아 CAMBODIA



김형길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원장

지역 자원봉사자의 손길, 뿌리 내리는 캄보디아 밥퍼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 특별한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시엠립면 마을지킴이분들이 손수 자신들의 마을 아이들을 위해 밥퍼 봉사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쯡크니어면 마을지킴이분들이 밥퍼에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였습니다. 캄보디아 다일공동체가 12년 동안 이 지역을 섬겨오면서 지역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다가온 것은 처음입니다. 캄보디아 밥퍼가 이제 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지역봉사자의 손에 의해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는 캄보디아 다일공동체가 될 것을 기대해봅니다.

창작의 꿈나무

캄보디아의 꿈나무 육성을 위해 캄다일에서는 학사 기능을 하는 꿈퍼와 교육비지원, 영어와 한글 그리고 예체능 수업인 방과후 교실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박명희 권사님의 후

원으로 화가 꿈나무 발굴을 위해 미술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창작의 꿈을 키워가도록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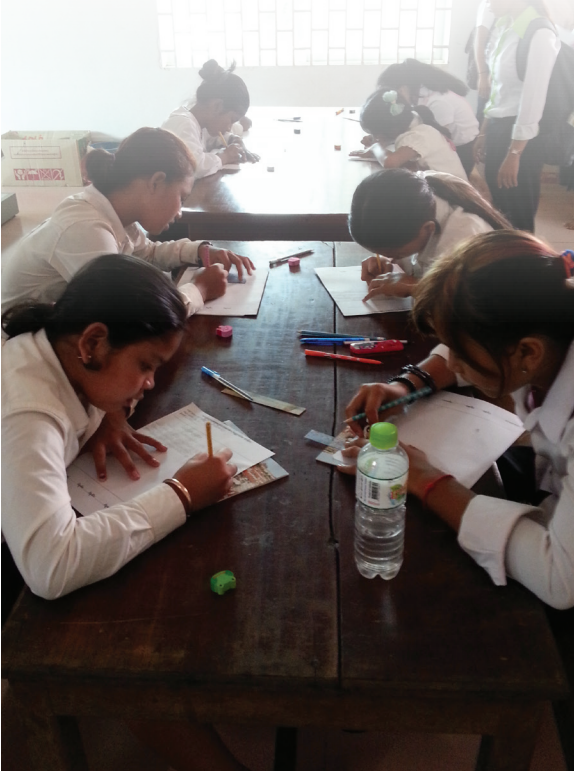
지난달에도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는 한국문인선교회 의 후원으로 3번째 글짓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80여 명의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참여했습니다. 모두 얼마나 진지하게 글을 써 내려 가던지 보는 이마다 숨 죽이고 감동하였습니다. 글쓰기를 마치고 함께한 선생님들이 건네주신 말씀에 더욱 마음이 뭉클해지며 의지를 다지게 됩니다. “다일공동체가 글짓기 대회를 열어주어 우리 학생들이 글을 써 보는 연습을 더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대회를 2년에 한 번이 아닌 일년에 한 번씩 열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같은 선생님들의 말씀에 듣는 저희가 더욱 감사했습니다. 글짓기 대회를 통해 지역 아동들이 다일공동체 설립자이신 최일도 목사님과 김연수 사모님처럼 훌륭한 작가가 되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쳐보겠다는 소중한 마음들도 보게 됩니다. **DAIL**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 +855-12-808-861



① 미술반수업 ② 지역봉사



베트남 VIETNAM



밥퍼신축장소

이애리 베트남 다일공동체 원장

희망을 향해 달려가는 밥퍼

한국은 봄이 시작된다고 하는 입춘(立春)이 지나면서 매화나무에 화사한 매화가 꽃망울을 터트렸다고 합니다. 올해 유난히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난 매화라 그 향기가 더욱 진하고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한국에 사계절이 있다면, 베트남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더운 계절, 조금 더 더운 계절, 많이 더운 계절, 엄청 더운 계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더운 계절에서 조금 더 더운 계절로 넘어가는 시즌입니다. 조금 더 더운 계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베트남을 위해서, 베트남 다일공동체를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 해주시는 한분 한분을 생각하면 힘들고 더워도 늘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현재 베트남 다일공동체는 밥퍼 센터를 이전하고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밥퍼가 필요한 곳이면 언제든지 어느 곳이라도 달려가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 센터를 옮기는 호치민 7군에서는 수상빈민들, 판자촌빈민들을 대상으로 밥퍼(무상급식), 빵퍼, 환경 개선, 의료, 교육사역을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밥퍼가 멀어 오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영양가 있는 빵을, 형편이 어려워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에게는 교육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역을 진행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에 맞게 선하게 인도 받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사역지를 이전하는 곳에 밥퍼와 빵퍼, 교육사역을 진행할 수 있는 건물을 세우고자 합니다. 건물을 건축하고 필요한 식기구를 구입하는데 따른 예산이 5천만원이 필요합니다. 베트남 다일공동체 사역이 필요한 곳에 나눔과 사랑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배고픈 이들과 함께 밥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희망을 향해 달려나가겠습니다! **DAJL**

 **베트남 다일공동체 | +84-9038-20918**

측면에 판자집을 이루고 있는 빈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탄자니아 TANZANIA



박종원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원장



뜯어진 모기장

검은 천사들을 위한 천사들을 기다립니다!

탄자니아는 3월부터 5월까지가 대우기철입니다. 대우기철인데도 3월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의아했는데 4월에는 보란듯이 엄청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면 가장 걱정되는 것은 쿤두치 빈민촌 아이들의 건강과 그들의 집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대우기철을 맞으며 호프클래스 3기 40명의 아이들은 매일 번갈아 가며 말라리아에 걸리고 있습니다. 현지 스텝들과 한국에서 1년간 봉사를 온 김하라, 정제운 간사님도 말라리아에 걸려 고생 했습니다. 아동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보면 왜 그렇게 거의 모든 아이들이 말라리아에 걸리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동들이 사는 대부분의 흙집들은 많은 비로 인해 천정과 벽이 허물어져서 큰 구멍들이 여기저기 많이 생깁니다. 그나마 모기장이 있는 아동들은 말라리아에 조금 덜 걸리지만 대부분의 아동들은 모기장마저도 여러군데 구멍 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다일공동체에서는 말라리아 예방을 위하여 매년 1회 모기장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 모기장이라도 사용하면 말라리아 모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기철인 4, 5월에 걸쳐 300개의 모기장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기장 1개의 가격은 4천원(4불), 10개는 4만원(40불)으로 총 120만원(1,200불)이 소요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더 많은 아이들에게 모

기장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멋진 소년, 다우디

호프클래스 2기로 1년간 공부했으나 나머지 공부가 필요해서 3기로 1년간 더 공부하는 다우디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다우디는 다지증으로 태어나 왼손가락이 6개였습니다. 평상시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고 손도 잡지 않으려는 친구들에게 상처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다우디는 부모의 보살핌도 받지 못하는 아주 외로운 소년입니다. 다우디의 아버지는 가출을 했고, 어머니는 알콜 중독입니다. 아무 수입도 없는 다우디 엄마는 아침부터 빈민촌 주점에서 살아갑니다. 이 동네 술꾼들의 말동무가 되어주며 늦은 밤까지 술을 얻어 마십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다우디를 챙기는 사람은 정작 다우디 엄마가 아닌 주변의 아주머니들입니다.

얼마 전 이런 다우디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곳에서 봉사하신 이화용 판사님과 송미아 사모님이 다우디의 어려운 형편을 직접 보시고 다우디의 다지증 수술비를 보내주셔서 수술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술병에 걸린 엄마와 다우디는 계속해서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후원자의 사정으로 결연이 끊긴 다우디의 아동결연 후원자가 필요합니다. 멋진 소년이 되어가는 다우디의 후원자가 되길 원하시는 분은 한국 다일공동체(02-2212-8004)나 미주 다일공동체(1-770-813-0899)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까만 천사들을 위한 천사들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DaIL**

수술 전과 후의 다우디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 +255-755-154-246

중국 CHINA



이희준 중국 다일공동체 원장

캄다일 봉사를 마치고 돌아온 한해연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서 지난 2년 동안 봉사한 중다일의 한해연이 활동을 은혜로이 마치고 보다 깊고 성숙해진 모습으로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돌이켜 생각할수록 감사가 넘치고 캄보디아 다일공동체가 자꾸 생각나고 그립다고 합니다. 동생들은 오랜만에 돌아 온 언니가 반가워 든든해하며 좋아합니다. 돌아오자마자 동생들 숙제까지 열심히 챙기는 모습을 보며 동생들에게 해연이의 지난 2년의 삶이 중다일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남을 뿐 아니라 좋은 본이 될 것임을 믿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해연이를 응원해주세요!



한해연 방문

포스코 현대 물류 유한공사 견학

훈춘현지의 포스코 현대 물류 유한공사(연제성 법인장)의 초대로 중다일 온 가족이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훈춘의 포스코 현대는 지난해 말부터 직원들의 월급의 1%를 중다일에 후원하며 매달 정기 봉사를 하시고 계십니다. 포스코에 방문해 거대한 물류창고들과 회사 곳곳을 참관하고 맛있는 점심식사도 대접 받으셨습니다. 특별히 큰 아이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는 귀

한 시간이었습니다. 초대해주시고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훈춘의 포스코 현대에 감사드립니다.



포스코현대 견학

김문녀의 1:1 결연자가 되어주세요

김문녀(조선족, 여, 13세)는 현재 소학교 6학년으로 2살에 부모님과 헤어져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시민정국을 통해 작년 11월 다일가족이 되었습니다. 밝고 총명하며 불임성이 매우 좋습니다. 한편으로는 잘 적응해 참 감사하기도 하고 워낙 많이 여기 저기 다니며 눈치를 보고 살아 이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몇 년은 살았던 아이처럼 익숙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 그 동안의 삶이 보이는 듯해 마음이 아픕니다. 현재 문녀는 1:1 아동결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녀의 1:1 결연자가 되어 문녀의 꿈을 함께 응원하며 가꾸어 주실 후원회원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DAIL**



김문녀

중국 다일공동체 | +86-433-753-8004

다일 천사병원 다일 작은천국



임정순 다일 작은천국 원장

하나님은 고치시고 우리들은 봉사합니다.

얼마전 다일 작은천국에 참으로 감사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삼진제약이라는 곳인데요 작은천국분들을 섬기고자 연락 드렸어요!” 삼진제약 봉사자분들의 섬김 덕분에 다일 작은천국 입소자 어르신들은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일 작은천국/천사병원에 있는 텃밭에 꽃을 심는 원예요법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꽃을 보고 향기를 맡으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텃밭에 정성껏 꽃을 심는 입소자 어르신들의 솜씨가 예상보다 훨씬 뛰어나 삼진제약 봉사자분들과 작은천국 직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삼진제약 이성우 대표이사님과 삼진제약 봉사자분들의 섬김 덕분에 참여한 입소자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준비한 모든 스태프분들이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더욱 감사하게도 이성우 대표이사님이 다일 작은천국 입소자 어르신들을 위해서 후원금도 전달해주셨습니다.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찾아와서 봉사로 몸소 보여주신 삼진제약 스태프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마음소리 프로그램

다일 작은천국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입소자 어르신들은 사회에서 노숙인이라는 낙인을 찍히고 냉정한 시선과 비판을 받으며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다일 작은천국에 입소하시기 전 세상과 가족에게 얻은 아픔들은 감히 상상할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 상처의 아픔을 치유의 손길로 보듬어주고자 다일 작은천국은 계슈탈트 이론에 근거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인 “마음소리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마음소리 프로그램을 통해 다일 작은천국 입소자 어르신들과 직원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친하지 않았지만 자신만의 별칭을 만들고 이름대신 별칭으로 소통하며 서로에 대해 몰랐던 모습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그들만이 간직하고 있던 아픔들을 알게 되었고 아픔과 상처를 눈물로 보듬어주는 기적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마음소리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볼수있게 된 입소자어르신들은 이제야 이런 프로그램을 알게 된 것이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며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이해와 배려를 통해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다일 작은천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DAIL**

 **다일 천사병원 다일 작은천국 | 02-2213-8004**



삼진제약 입소자와 함께 원예요법



마음의 소리 프로그램 진행사진



차량수리 후 스피드메이트 차장님과 밥퍼 직원들

밥퍼 나눔 운동 본부 BABFOR SHARING MOVEMENT



고세인 밥퍼 나눔운동본부 부분부장

스피드메이트 '밥퍼 트럭' 무상수리



다일공동체 밥퍼 나눔운동본부에는 밥퍼 트럭이 있습니다. 밥퍼 트럭은 장 볼 때 식재료 운반에서부터 후원물품 수령까지 아주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데 많이 쓰이는 만큼 차량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번에 밥퍼 트럭의 타이어가 많이 마모되어 차량수리를 위해 믿음만한 업체를 찾던 중 올해 2월에 어르신들께 떡국 떡을 후원해주신 "스피드메이트"가 생각 났습니다.

SK네트웍스 스피드메이트 사업개발팀의 황희찬 차장님께 타이어 교체 및 차량점검을 문의 드렸더니 무상수리 프로젝트를 진행하셔서 한 달 만에 스피드메이트 팀이 밥퍼에 오셨습니다.

차량 상태를 보시곤 "밥퍼 트럭은 매일 사용하셔야

하니 이틀 안에 수리를 해서 오겠습니다." 하시더니 차량을 가져가신지 하루 반나절 만에 깨끗하게 수리해 주셨습니다. 요청 드린 타이어뿐만 아니라 타이어 6개 전체와 전체 브레이크 디스크 및 패드 교체, 범퍼 수리 및 도장, 적재함 도장, 오일류 점검 및 보충 거다가 세심하게 방향제와, 핸들커버 교체, 밥퍼 로고 교체까지 해주셨습니다.

너무도 신속하고 세심한 수리에 놀라 "차량 수리하시느라 밤 세우신거 아니세요?."하고 여쭙더니 차량이 도착하기 전부터 4명의 기술진이 수리할 부분을 미리 계획하고 한꺼번에 착수하여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리를 꼼꼼하고 면밀하게 검사하고 수리했다고 하신 말씀에서 따뜻한 마음과 수고하신 노고가 잘 전달됐습니다.





차량 수리 전

차량 수리 후



스피드메이트 강서공장 정예 정비팀



떨리는 마음으로 수리된 차량을 운전해 보았더니 소리도 조용해지고 제동도 잘 되고 안전하게 잘 정비가 되어있었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배웅하는데 다음에는 바빠도 꼭 시간을 쪼개 봉사에도 참여하고 싶다는 말씀도 해주시고 따뜻하게 웃어주시는 스피드메이트 팀 덕분에 봄이 한걸음 더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나눌 줄 알고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심에 감사하며, 다일공동체 역시 최선을 다해 사역을 감당해나

가길 다짐하며 외쳐봅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실천하는 스피드메이트가 최고야! 밥퍼가 최고야! **dail**



기술이나 재능으로 다일공동체를 후원해주실 또 다른 기업이나 단체를 기다립니다.

 밥퍼니눔운동본부 | 02-2214-0365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 I . am . a . happy . volunteer

밥 퍼



휴먼레이스 |

지난 3월 마라톤 동호회인 휴먼레이스에서 밥퍼를 방문하셨습니다. 밥퍼는 위기에 빠진 이들에게 가장 든든한 지푸라기라고 비유하시며 베행 끝에 매달린 이들을 힘껏 끌어 올려 달라고 밥퍼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신 휴먼레이스 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자주 밥기를 희망합니다!



국립외교원 |

정기적으로 봉사를 오시는 국립외교원 직원분들이 방문하셨습니다. 이 날은 특별히 국립외교원 외교원장님께서 방문하셔서 밥퍼 활동뿐만 아니라 다일공동체의 전 세계의 활동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국립외교원 직원 한 분은 매일 하루에 한 번 남편을 위해 밥을 준비하지만 800여분의 식사를 준비한다는 경험이 너무나 소중한데 오랜만에 사회의 '일원'이라고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국립외교원의 활동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군인공제회 |

지난 3월, 군인공제회에서 밥퍼봉사를 오셨습니다. 군인공제회는 매년 두 번씩 후원을 해주시며 봉사활동까지 정기적으로 하러 오시는 곳입니다. 이번에도 500만원을 후원하시고 노력봉사도 함께하시어 밥퍼를 더욱 빛내주셨습니다. 힘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잃지 않으시며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하시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밥퍼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올해 하반기에 또 다시 밥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국기독교로별국제학교 |

한국기독교로별국제학교에서 매일 13명씩 5일 동안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셨습니다. 봉사활동을 오면서 한 학생은 밥퍼는 샤프심이라고 비유하며 샤프를 쓸 때는 다 쓴 것 같지만 눌러보면 계속 나오듯이 밥퍼 활동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면 계속해서 감동을 전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소감을 남겨주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성장하여 어른이 되었을 때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좀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멋진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 국



훈춘시 공상연합회 |

훈춘시 공상 연합회 3주 회원분들이 지난 춘절에 방문한 이후로 다일 어린이집에서 지속적인 후원과 봉사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직업의 회원분들이 계셔서 아동 유치원 교육 보조나 작문 교실 등에 참가 하도록 연결해주시고 아동교구등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훈춘시 공상연합회의 섬김의 모습이 감사하고 아름답습니다.



포스코 현대 물류 유탄공사 |

포스코 현대물류유탄공사는 2015년부터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에 법인장님과 직원분들이 각 15분씩 조를 이뤄 돌아가며 후원 및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아이들 얼굴도 익숙해지고 다일어린이집의 업무를 잘 파악하셔서 가장 필요하고 어려운 일들을 찾아 아름다운 섬김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베트남



DAEWOO INTERNATIONAL |

2012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매월 셋째주 화요일마다 밥퍼를 섬겨주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DAEWOO INTERNATIONAL 기업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아끼는 DAEWOO INTERNATIONAL 기업이 베트남에서 더욱더 멋진 기업체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나눔의 실천을 몸소 보여주는 DAEWOO INTERNATIONAL 기업이 최고입니다!



POSCO VIETNAM |

매월 둘째, 넷째주 목요일이면 POSCO VIETNAM 임직원분들이 밥퍼를 찾아주십니다. 2012년부터 매월, 매년 빠짐없이 한결 같은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해주시는 POSCO VIETNAM 기업은 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맛있는 먹거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후원금 또한 준비해 주십니다. 호치민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POSCO VIETNAM 임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이공한인연합교회 |

밥퍼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밥퍼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신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사이공한인연합교회'입니다. 밥퍼의 필요에 따라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더니 2016년 3월을 시작으로 매월 둘째, 넷째주 수요일마다 밥퍼를 섬겨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항상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주시는 멋진 '사이공한인연합교회'입니다.



사이공한마음연합교회 중고등부 |

하·기·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통하여 모은 용돈을 따뜻한 밥을 나누는데 사용하고자 사이공한마음연합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밥퍼를 찾았습니다. 풍성하게 준비해주신 선물과 맛있는 밥이 받는 분들의 얼굴과 마음을 환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섬기는 모습이 참 귀함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사이공한마음연합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 최고입니다!

캄보디아



KCOC 단원 박예인 |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 크게 성장했듯이, 캄보디아의 아이들이 다일과 함께 꿈을 가지고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날마다 밥과 빵,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분명히 주려고 온 것 같은데, 더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듯, 주는 아이들의 그 사랑에 저는 오늘 하루도 감격합니다.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로 놀러오세요!



KCOC 단원 김슬기 |

췌어 쓰다!!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서는 음식을 나누어 줄 때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어곤 뽀레아 예수' 라고 말하며 나누어줍니다. '어곤 뽀레아 예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라는 뜻으로 이 밥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던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아이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밥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밥을 나누어줄 뿐인데 아이들은 항상 저에게 온 마음을 다해 사랑을 나누어줍니다. 앞으로 아이들과 함께 노래하면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고 노래로 한 영혼을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사회복지법인 다일공동체
이사회 귀중

2016년 2월 12일

우리는 별첨된 사회복지법인 다일공동체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15년 12월 31일과 2014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운영성과표 및 순자산변동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과 기타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의 정관, 사회복지법인및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및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에 대한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함합니다. 절차의 선택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위험을 평가할 때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정한 표시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또한 재무제표의 전반적 표시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에도출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법인의 재무제표는 사회복지법인 다일공동체의 2015년 12월 31일과 2014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운영성과를 법인의 정관,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및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삼 화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석 완 주





세입결산

단위: 천 원

항목	금액	%
이월금	1,259,936	20.59
후원금(품)	4,555,283	74.43
보조금	284,324	4.65
기타수익	21,093	0.34
합계	6,120,636	100.00

세출결산

단위: 천 원

항목	금액	%
사업비	3,629,224	59.29
전출금	73,783	1.21
운영비	555,187	9.07
재산조성비	264,612	4.32
이월금	1,597,830	26.11
합계	6,120,636	100.00

*인도의 국경봉쇄로 인해 네팔 물자 공급에 극심한 곤란을 겪으면서 교회 건축등의 재건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등의 이월금이 발생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신규 후원회원 및 물품 후원 명단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후원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격월로 발행되는 소식지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관리실 02-2212-8004

<p>신규후원회원 16.02.16 ~ 16.04.15</p>	<p>(주)아모레퍼시픽, CBMC광화문지회, colwell, MACQUARIE, 가준식, 강미란, 강병욱, 강성길, 강운유, 강찬미, 강하울, 고은혜, 고재남, 곽수산나, 구길호, 구미자, 구자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열, 권다윤, 권영란, 근흥교회, 금성, 김규연(김보연), 김남경, 김동윤, 김동주, 김문기, 김미영, 김민음, 김사철, 김선욱, 김성경, 김성립, 김성미, 김성수, 김성애, 김성화, 김승기, 김영걸, 김원태 외, 김유신, 김은주, 김은혜, 김재홍, 김정미, 김정현, 김주윤, 김준섭, 김지영, 김지은, 김지희, 김태윤, 김태준, 김태현, 김해문, 김현순, 김혜경, 김홍열, 김화분 영기덕, 나향근, 남성우, 남현지, 노옥란, 다인정보 주식회사, 동기풍 김양은, 동명희, 라정숙, 류은서, 류진태, 문미리, 문상식, 문영옥, 박경순, 박다정, 박송이, 박옥분, 박종현, 박준호, 박하림, 박형숙, 배정란, 백민경, 백수정, 백하나, 백해란, 서준영, 성북교회, 성영희, 손귀성, 손병숙, 손병윤, 손성건, 손정현, 송명홍, 수원등불교회, 신영자, 아이피스외국환중개(주), 안을순, 양미혜, 양수용, 양영민, 엄명숙, 최순영, 연대경영전문대, 염호식, 오수광, 오찬미, 우미현, 원경고등학교, 유영숙, 유용선, 유푸른, 윤명자, 윤정도, 윤지혜, 이경숙 외, 이경엽, 이기영 외, 이닝차이니스, 이다복, 이보미, 이상안, 이선숙, 이선자, 이송민, 이숙자, 이순옥, 이승재, 이원석, 이원우, 이이삭, 이인복, 이인호, 이정남, 이정화, 이정훈, 이정희, 이종임, 이종호 외, 이지선, 이충현, 이태조, 이혜경, 이혜우, 이형림, 이홍중, 이화용, 임유나, 임정미, 임진목, 임혜현, 장기쁨, 장영진, 장원준, 장재원, 전미숙, 전순호, 전영애, 정명혜, 정미자, 정수진, 정옥진, 정윤희, 정준호, 정지선, 정찬준, 정채원, 정채인, 정하윤, 정현, 정호형, 조성희, 조효상, 채정수, 천월희, 최덕현 문란희, 최명자 윤지애, 최문식, 최미숙, 최삼미, 최영란, 최정민, 최정숙, 최정호, 최현주, 최홍선, 태능성서침례교회, 표금석 외, 하경택, 한국구화학교, 한혜민, 허경덕, 홍민석, 홍민철, 홍성곤, 홍성수, 홍성원, 황슬예, 황옥연, 황일규 이은원, 휴먼레이스 황민희</p>
<p>밥퍼나눔 운동본부 16.02.16 ~ 16.04.15</p>	<p>후원물품 / FNC엔터테인먼트 드림미(FT아일랜드 이홍기) 쌀(20kg, 50포대), 김일심 참기름(20병), 농업회사한만두식품주식회사 만두, 덕소다일교회 우유 아쿠르트 장판, 동의보쌈 김치(125kg), 두산정보통신 쌀(20kg, 50포대), 두산정보통신사업부 쌀(20kg, 25포대), 드림재단 빵(6,400개), 뽕뽕빵 빵(138개), 뷰티풀마인드 쌀(20kg, 10포대), 삼오종합식품 삼장, 샤론의 꿈 명성교회 쌀(20kg, 10포대), 서울우유 우유(1920개), 서울축산농협(서울축협하나로마트) 쌀(10kg, 25포대), 애드컴퍼니 물티슈(9000개), 영란여자중학교 삶은계란(636개), 옥합산교회 앞치마 재봉틀 수건, 위크리에이티브 트럭(차량), 이승숙 김치(50kg), 이영옥 쌀(20kg, 5포대), 이정원 쌀(20kg, 5포대), 장류협회 장(5박스), 정신여자중학교 삶은계란(1000개), ㈜유원미트코리아 정육외(291kg), ㈜정호유통 무우(73자루), ㈜한국일오삼 잔육 복채(226kg), 칠동 정미소 상추(1박스), 캐논코리아 쌀(20kg, 6포대), 크로스코리아 신말(40컬레),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 황태찜(179kg) 황태채무침(100kg), 한국소비자연맹 쌀(20kg, 10포대)</p>

해외 분원 후원명단은 현지에서 직접 후원하신 분들입니다.

<p>캄보디아 다일공동체 16.02.16 ~ 16.04.15</p>	<p>후원금 / 금성교회, 김진용(주문진로타리클럽 회장), 김훈(힐링코리아 가이드), 대박, 더불어 꿈, 더불어 꿈 봉사캠프 5기, 마중물 예람교회, 밀양남부교회, 무명, 바이오트로닉, 박수덕(금성교회), 사랑교회, 서문교회(대일장로교회), 생명나무교회, 심철수, 서연순 정경숙 조보향 김효정 이화자 김순옥, 여수벤엘교회, 오세향(부산 새롬교회), 이용천 오순희, 진영 다음 소담, 주문진로타리클럽 3739지구, 조희철 구인경(남서울은혜교회), 프놈펜 제일교회, 카도, 하학감리교회, 한우리 여행사, 한해연 한연, 해남 신명교회(우현무목사), 한지혜(기쁨이 있는 교회)</p> <p>후원물품 / 김한규 책,옷,신발, 마중물예람교회 음료수, 무명 옷,학용품, 더불어 꿈 신발, 애플라이온스클럽 치약 칫솔 손톱깎이 세트, 동아제약 박카스, Tom 학용품, 기쁨이 있는 교회 학용품 옷,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옷 학용품 줄넘기등, 추현규 옷 사탕, 무명 학용품, 주문진 로타리클럽 초코렛 쌀 밀가루 설탕 노트, 무명 옷 학용품, 김혜영 과자세트, 윤통규 김법문 박영미 옷 학용품, ITF COLLGE EAST 옷, ICSP 사탕, 오덕자 진현진 진태건 옷, 이한솔 김한이 김병윤 이연순 옷, 성남 임경희 학용품</p>
<p>중국 다일공동체 16.02.16 ~ 16.04.15</p>	<p>후원금 / 김성재(Obey & Praise), 다일졸업생 모임, 비:브릿지, 이랜드, 훈춘 직업고중</p> <p>후원물품 / 권윤경(아동 간식, 건조대 외), 한해연+한연(아동 잔치 외식 지원), 류 앤(노트북), 애심찰떡(떡), 포스코 현대 국제 물류 유한공사(건축지원)</p>
<p>베트남 다일공동체 16.02.16 ~ 16.04.15</p>	<p>후원금 / A PLUS, DAEWOO INTERNATIONAL, LOTTERIA, NAHAL, POSCO VIETNAM, THANH COMG, VEGAS, 고갑순(닥터 카 대표), 기업은행, 김경중(U.E.C 원장), 김상빈, 김일기, 김미덕, 나경희, 나향준, 대장금, 대한정사, 모금함, 밥퍼29팀, 보민건설, 사이공 드림교회, 사이공한인연합교회, 신덕현, 아리랑화학, 아산상선, 안영미, 온세로교회, 이정자, 정용, 참조은광성교회, 한마음교회 중고등부, 호치민중앙교회, 홍현철 대표이사 (LEDSAVER)</p> <p>후원물품 / POSCO ICT 쌀, Sweet Factory 빵, THANH CONG 바나나 옷 김치, VEGAS 라면 우유, 사이공드림교회 라면 우유, 안선욱집사 잡채 김밥 돈까스, 추원미사장님(유천냉면) 주방조리대(4세트), 통큰소 백숙, 최순열 선교사 국그릇(6개), 한마음 교회 바나나 쌀 초코파이 김</p>
<p>필리핀 다일공동체 16.02.16 ~ 16.04.15</p>	<p>후원금 / 동노회, 연성대학교</p> <p>후원물품 / 박희자 초코칩수제쿠키(250,000개), 서울 동노회 캔디(200개)</p>
<p>네팔 다일공동체 16.02.16 ~ 16.04.15</p>	<p>후원금 / 이은지님, 포항기쁨의 교회, 송명홍, 순천향대학병원, 박병원, 최정순, 조국현, 윤계수, 신광철</p> <p>후원물품 / 조국현 볼펜(300개), 신광철 도너츠(400개), 노규환 옥수수 뽕튀기(300봉지)</p>
<p>우간다 다일공동체 16.02.16 ~ 16.04.15</p>	<p>후원금 / 홍성순</p>
<p>탄자니아 다일공동체 16.02.16 ~ 16.04.15</p>	<p>후원금 / 광수산나, HOPAC 학생들, 양경순, 신경숙</p> <p>후원물품 / 송금영 대사(50Kg)</p>
<p>천사병원 16.02.16 ~ 16.04.15</p>	<p>후원물품 /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의약품, 이연제약 의약품, 알보젠코리아 의약품</p>

후원안내



문의 | TEL. 02-2212-8004 FAX. 02-2243-8005

만원의 행복(월 1만원)	밥퍼나눔운동본부, 천사병원을 비롯하여 다일의 해외 사역을 위한 후원입니다.	
1:1 해외아동결연(월 3만원)	해외 아동과 1:1 결연을 통하여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며 양육할 수 있습니다.	
생쌀이 운동 (Rice Pot Relay)	무의탁노인과 독거노인, 북한전역과 어려운 지역, 해외 빈민촌을 돕기 위하여 쌀을 릴레이 후원하는 캠페인입니다.	
화해의 밥 운동	화해의 밥 나누기 캠페인은 작은 갈등으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나부터 먼저 화해의 밥을 함께 나누는 운동입니다.	
다일천사후원 (1구좌 100만원)	다일공동체의 의료지원사업(다일 천사병원, 다일 작은천국, 해외 보건의료사업, BCP 등)을 위한 후원입니다.	
후원계좌 (예금주 : 다일공동체)	나눔 계좌	외환은행 131-22-00800-7 국민은행 010-01-0619-487
	만원의 행복	외환은행 131-22-00892-9 하나은행 158-910001-02004
	생쌀이 운동(Rice Pot Relay)	국민은행 467737-01-002291 (예금주 : 다일공동체 생쌀이운동)
	화해의 밥 운동	KEB하나 158-910009-61204 국민은행 467701-01-275676 다일공동체(B.P.M)
	밥퍼 나눔운동본부	국민은행 010901-04-037581
	설곡산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010901-04-064419
	다일 천사병원	국민은행 010-01-0975-871 하나은행 158-910002-46204 외환은행 131-22-01134-2
	다일 작은천국	국민은행 467701-01-224504
	다일 평화의 마을	국민은행 010-01-0619-487
	캄보디아씨엠립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142565
	캄보디아프놈펜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142578
	베트남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142594
	필리핀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142581
	중국 다일공동체	기업은행 017-033086-01-021
	네팔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157448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233964
	우간다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231436
	미주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053115

미주 후원계좌

은행이름 : First Intercontinental Bank
은행번호 : 061119794
계좌번호 : 1510014622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은행이름 : Bank of America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계좌번호 : 334040926776
International Swift code (한국 및 외국에서 송금시) : BOFAUS3N
Domestic ABA code (미국내 타주에서 송금시) : 026009593
Routing # (미국 조지아에서 송금시) : 061000052
은행주소 : GA7-914-01-01, 2608 Pleasant Hill Road Duluth, GA 30096
TEL: 678-323-0222

캐나다 후원계좌

TD Canada Trust Bank
Account No : 5222930
Transit No : 13542
Inst. No : 004
Account Name : Dail Community of Canada
Pay to. Dail Community of Canada
1811-270 Scarlett Rd. Toronto. ON M6N 4x7, CANADA

(미주에서 후원하신 후원금은 미국 다일공동체를 통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내 · 해외분원연락처



다일공동체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Tel. 02-2212-8004

밥퍼 나눔운동본부

025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8
Tel. 02-2214-0365

다일 천사병원, 다일 작은천국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Tel. 02-2213-8004

설곡산 다일공동체

12471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산 52번지
Tel. 031-585-2004

다일 평화의 마을

12474 경기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Tel. 031-568-5004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씨엠립 본원

St N'63 Toul Kork Pey Phnom Krom village Siem Reap
Commune Siem Reap Province, CAMBODIA
Tel. +855-12-808-861

프놈펜 지부

Angdong Village, Kook Roka Commune, Dong Kor
District, Phnom Penh City, CAMBODIA
Tel. +855-12-808-861

중국 다일공동체

133300 吉林省 琿春市 新安街 多一少年之家
Tel. +86-433-753-8004

네팔 다일공동체

카트만두 본원

Manohora 16 Madhayapur thimi city Bhakthpur, NEPAL
Post Box No. 25655 Kathmandu, NEPAL
Tel. +977-98494-58330 / +977-98038-00670

포카라 지부

17 Damside Kaski, Pokhara Sub Municipality, Nepal
Tel. +977-98607-76685

우간다 다일공동체

P.O Box 85 Kisubi, UGANDA
Tel. +256-77107-2382

필리핀 다일공동체

BLK 8 Lot 3 Calliandra st. I Greenwoods, Paliparan#1
Dasmariñas, Cavite 4114, PHILIPPINES
Tel. +63-92-7560-7346 / 070-8220-3278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Plots No. 192 at Jangwani Beach, Kinondoni Muniopality,
Dar_es_salaam city Tanzania
Tel. +255-755-154-246

베트남 다일공동체

R4-51 Hung Gia2, PMH, Tan Phong Ward, District7,
HCMC, VIETNAM
Tel. +84-9038-20918

미주 다일공동체

2976 buford hwy Duluth GA 30096, USA
Tel. +1-770-813-0899
Fax. +1-770-813-0144
www.dailusa.org

캐나다 다일공동체

1811-270 Scarlett Rd. Toronto, ON M6N 4X7, CANADA
Tel. +1-416-824-4831

다일공동체 후원신청서

원하시는 후원란에 체크해 주세요

정기후원

- 만원의 행복 월 1만원 _____ 구좌 일대일아동결연 월 3만원 _____ 명 기타 월 _____ 원

일시후원

- 다일천사후원 1구좌 100만원 다일평생천사후원 1구좌 1,004만원
 다일레거시10(유산기부) 기타 _____ 원

재능기부

- 영문 통/번역(한->영) 디자인/영상 기타 _____

후원회원 정보

이름 _____ 주민등록 앞번호 _____ (남/여)
연락처 _____ SMS수신동의 이메일 _____ Email수신동의
주소 _____ 우편물수신동의

CMS 자동이체 동의서 (정기후원에 해당)

출금은행 _____ 예금주 _____
계좌번호 _____ 이체희망일 5일 15일 25일

예금주 주민등록 앞번호 _____ (남/여)

CMS출금 이체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금융거래정보(생년월일, 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출금 이체하는 때로부터 해지신청을 할 때까지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거래법”에 따라 동의합니다.

기부금영수증

주민등록번호(전체)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기재해주신 주민등록번호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됩니다.

다일공동체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지정기부금단체이며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한 기부금영수증발급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의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부금영수증 서식(소득세법 별지 제45호 의 2서식)에 의거하여 기부금영수증 및 국세청 신고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명시된 <주민등록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용>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후원자 정보 및 결제 정보 기재에 동의하여 약정합니다.

년 월 일

이름: _____ (서명)

위 내용은 후원자 정보등록 및 연말소득공제를 위한 자료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최일도 목사와 함께 하는 눈물과 감동의 힐링여행

아름다운 세상찾기

숨가쁘게 돌아가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우울증, 중독, 가정불화 등의 고통을 치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전통적인 기독교 영성수련

일정안내

1단계 아름다운 세상찾기 (4박 5일)

173기 5/23 ~ 5/27 _미국 뉴저지
174기 7/12 ~ 7/16 _설곡산
175기 8/2 ~ 8/6 _설곡산
176기 9/13 ~ 9/17 _설곡산

2단계 작은 예수 살아가기 (4박 5일)

48기 7/26 ~ 7/30 _설곡산
49기 8/9 ~ 8/13 _설곡산

3단계 하나님과 동행하기 (5박 6일)

21기 7/18 ~ 7/23 _설곡산
22기 8/15 ~ 8/20 _설곡산



최일도 목사

다일공동체 대표
설곡산갈보리채플 담임
다일천사병원 병원장
한동대학교 겸임교수

등록안내 및 입금계좌

영성수련(대관 및 개인피정) 신청은 수련시작 일주일 전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수련비 입금으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수련 한달 전에 입금하시면 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금계좌 : 농협 355-0022-4654-93 (예금주/ 다일공동체)

신청 및 문의

국내문의 : 031 585 2004
010 6375 8004
홈페이지 : www.dail.org

갈보리채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988년 청량리에서 시작한 다일 공동체가 초심으로 돌아가 나사렛 예수의 영성생활과 예배 예전의 갱신으로 성사생활을 더욱 더 추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배하는 삶의 자리를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의 설곡산으로 옮겨서 매주일 공동예배를 드립니다.

예전이 있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 원하시는 귀하를 설곡산 다일공동체의 갈보리채플에 초대합니다.

주일공동예배: 1부(7시), 2부(10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산 52

Tel. 031 585 2004 이모세 형제 010 6375 8004

네비로 '설곡산 다일공동체'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청량리 법퍼에서는 매 주일 오전 8시에 셔틀 버스가 출발합니다.



후원방법

 모든 후원금은 연말 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다일공동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신용카드와 CMS로
다일공동체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www.dail.org



전화로 신청하기

다일공동체 전화 02.2212.8004로
후원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02.2212.8004



우편으로 신청하기

소식지 안쪽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다일공동체 카카오톡 친구가 되어주세요!

카카오톡
친구추가



QR코드로
추 가

또는

아이디로 추가

dailwf



친구등록
완료



다일QR코드

다일공동체 카카오톡 친구를 맺으시면 문의 답변 및 다일공동체의 소식을
보다 신속하게 받아 보실 수 있고
더욱 간편하게 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신청서
작성

예금주 서명 必



후원신청서
사진 전송



다일직원
확인전화